

##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정책」에 관한 토론문

구자황(숙명여자대학교)

최근 한국 가요, 영화, 드라마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문화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지형의 전환기에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을 탐색하고, 한류 콘텐츠의 구체적 발전 방향 및 정책을 고민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곽현주 선생님의 발표는 한국문학번역원을 중심으로 이어온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출판 현장의 숨소리가 들어 있고, 또 일련의 경과를 공유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간결한 정리와 함께 ‘내부자들’의 소통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문학과 한국어의 정체성을 재고하고, 세계문학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충분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적습니다.

토론을 위한 논점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해외출판 및 번역 정책의 기저에 놓여야 할 ‘시선 혹은 철학’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 전후 과정 전반에 관한 ‘효율적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정책의 기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 해외출판 및 번역 정책이 연속성/단절성을 갖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일련의 지원 및 공모 사업에 있어 한국문학번역원 혹은 공적 지원체계의 사전/사후 단계를 어디까지 확정해야 문화지형의 전환기에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1. 발표문은 “한국문학 해외출판정책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한국문학 저작권을 선구매하여 번역출판을 신청하는 해외출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달리 말하자면 ‘내부자 시선의 공급자 관점’에서 ‘외부자 시선의 수요자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발표문 전반에 기술된 내용을 감안하면, 해외 한국문학 소비자의 수요로부터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출판의 기준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문학상을 받거나(후보에 오르거나), 해외 문예지 및 언론에 언급되는 정도가 준거로 활용될 듯합니다. 해외 문학상, 문예지, 언론이 허투루 검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목할 리는 없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외부자적 시선과 기준은 ‘상업성이 낮으나 작품성이 높은 작품’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자 시선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외부자의 수요를 연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완’ 방안이 있어야 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시선과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미처 간취하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발표자의 부연 설명 혹은 첫 번째 논점에 대한 의견을 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발표문에 수록된 (‘공모사업’과 대별되는) ‘기획사업’에 대한 내용이 덜 구체적이고, 2023년부터 시행할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동시 지원’ 역시 대안적 성격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르별로 보면 소설의 해외출판지원은 거의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2001~2005년 동안의 이루어진 지원이 총 102건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출판지원 한 건수가 5년치를 넘는 135건입니다.(발표문 수록 2021년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65쪽 재인용) 이에 비해 고전, 인문사회, 아동은 2021년 한해 총 지원 건수가 17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상업성을 담보하거나 지향하는 소설 장르에 비해 학술적 차원 혹은 비상업성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고전, 인문사회, 아동 분야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을 자료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논점은 발표문 후반부에 서술된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정책 향후 과제>에 관한 단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논지는 최근 일고 있는 한국 문학 및 각종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대를 계기로 ‘문학한류 도입기’를 지나 ‘문학한류 성장기’로 진입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외출판 및 번역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개의 소제목은 발표문이 제시한 핵심 과제임에 틀림 없지만 지면 관계상 개요와 계획 정도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 동의 외에 특별히 논평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등을 둘러보다 든 단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점증하고 있는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수요를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 있는 기관이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문학번역원’이 국가 단위의 해외출판 및 번역 거점이라면, ‘대산문화재단’ 같은 곳은 민간 차원의 해외출판, 번역을 줄곧 감당해온 곳이라 생각됩니다. 과묵한 탓이겠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사업 혹은 성격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듯한데, 각각의 설립 취지나 목표는 인정하더라도 각 기관이 지향하는 해외출판정책의 특장점을 뚜렷하게 대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른바 성장기로 진입하려는 ‘문학한류’의 정책이 마치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의 해외진출 전략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해외출판 및 번역을 위한 직접 투자를 넘어 투자 유치에 위한 파트너 지원 전략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든 의문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동시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활한 지원을 장르별로, 언어권별로 혹은 맞춤형으로 수행하려는 정책 기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이 주목받고, 한 번의 문학상 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단계(배경)가 더 오래, 그리고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꾸준한 번역과 해외출판이 축적된 상황에서 하나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것이고, 하나의 문학상 수상은 다른 작가, 작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라야 지속가능한 문학한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 및 해외출판 지원 자체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사전/사후 단계(배경)를 고민하는 것이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 및 각종 콘텐츠를 소구할 수 있는 기반과 한국어 교육의 전진기지가 없다면 번역이나 출판을 위한 사전 단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번역 및 출판 활동에 대한 최신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번역의 질을 검수하는 사후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런 번역과 출판은 한국문학의 해외 선순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을 실감합니다.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을 더욱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책 읽는 것 말고도 정보와 지식을 매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 책 말고도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각종 콘텐츠가 해외에서 외적 성취를 이뤄내면서 문학과 문화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국내로 환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번역 및 출판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한국문학을 고루 향유하고, 나아가 우리 안의 출판문화 진흥과 독서 진작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